# 모든 존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생태별로 구별할 수 있지만, 사람은 구별[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계급·천민계급이라는 결정]할 수 없다. 인간들 사이의 구별은 다만 명칭에 불과할 뿐이다.**

–〈숫타니파타〉 #611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4생, 태란습화(胎卵濕化)로 구별한다. 앞 게송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은 이렇게 구별하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차별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000여년 전, 아리안족에 의해 계급(Caste·四姓)이 만들어졌다. 즉 브라만(제사장 계급)/ 크샤트리아(왕족)/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로 나뉜다. 그런데 이 계급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Out-caste)이 있다. 불가촉천민이란 더러운 존재이므로 자신보다 높은 계급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불가촉천민은 사원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마을 공동 우물도 마실 수가 없다. 또한 상층계급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멀리서 알아보고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거나 밤에만 외출을 해야 했다(지금은 금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신분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도 항의할 곳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수천년 흘러온 불가촉천민의 부당함에

**인도 최하위 계급인 '불가촉천민'**
**암베르카르 노력으로 제도 폐지**
**차별 존재… 부처님 현현 바란다**

이의 제기한 사람이 나타났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불가촉천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암베드카르(1891~1956)다. 그는 영국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도 독립 후 최초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그의 노력으로 1947년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폐지되었다.

암베드카르는 1949년 인도 사회의 신분차별 제도가 힌두교라는 잘못된 종교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힌두교 이념을 거부했다. 그런 뒤 불교로 개종하면서 현대 인도에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으켰는데,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 가운데 불교만이 계급을 부정하기 때문이요,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암베드카르가 개종할 때, 수천여 명의 불가촉천민이 함께 동참했다. 그가 주장한 불교는 관념적 불교가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천민들을 해방시키는 실천적 해방의 불교였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힌두사회는 불평등의 또 다른 이름인 카스트 제도 위에 서 있습니다. 힌두교는 억압받는 계층들에게 노예·농노와 같은 삶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불가촉천민)의 소원하는 바는 오로지 평등한 인권입니다.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종교는 석가모니 불교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암베드카르는 일찍 사망했다. 그가 조금만 더 장수했더라면, 불가촉천민들의 인권을 한층 더 끌어올렸을 것이다. 그의 사상을 본받아 불가촉천민에 대한 인권 운동이 꾸준히 이어졌다. 불가촉천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달리뜨 팬서(Dalit Panther)'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꾸준히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에도 수도 뉴델리에서 카스트 시위가 벌어져 최소 28명이 숨졌다. 반만년 지속되어온 계급제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해 이들의 발목을 잡을지 모를 일이다.

언제쯤 이들에게 봄이 올까? 다시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야 할 것 같다.

# 아프리카 어부와 나의 식탁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수산시장이나 해산물을 파는 대형식당에 넘쳐나도록 많은 해산물을 보면 어디서 온 걸까 궁금할 때가 많다. 무분별한 남획에다 해수온 상승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돼가고 있다 보니 떠오른 대안이 양식이다.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기른다는 기발한 생각은 고갈되는 바다의 진정한 대안 같았다. 그런데 양식장에서 물고기는 무얼 먹이며 기를까?

서아프리카 기니만을 돌아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세네갈 안에 가로로 가늘고 길게 생긴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다. 감비아의 대서양 연안 사람들은 쪽배를 타고 나가 손 그물로 물고기를 낚아 생계를 꾸려간다. 나무로 만든 쪽배로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 올릴 그물은 꿈도 꾸지 못한다. 아프리카 서해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봉가는 청어과 물고기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요긴한 생선이었다. 너무 흔해서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던 봉가가 더 이상 흔하지 않다. 귀한 생선이 되다 보니 가격도 치솟았다. 연안에는 이제 물고기 씨가 말라 지역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먼바다까지 나가야 한다. 쪽배로는 너무나 힘들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도로, 발전소, 공장 등 인프라

**아프리카에 中생선 가공공장 확대**
**인근 수산자원 싹쓸이…오염 심각**
**내 식탁과 아프리카는 연결돼 있다**

를 건설하며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아프리카 인근 바다는 엘도라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장이 풍부하다. 중국이 생선 가공공장을 여러 개 지으면서 세계적인 어분(fish meal)시장을 형성했다.

어분은 말 그대로 생선가루다. 양식산업에 단백질 보충제로 쓰이면서 황금 가루가 되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인 물고기는 빨리 자라 빨리 내다 팔 수 있어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준다. 황금 가루라 불리는 이유다. 참치 한 마리를 양식하는데 참치 몸무게의 15배에 해당하는 해양 동물을 먹인다고 한다. 황금 가루가 얼마나 많은 수요처를 갖고 있을지 짐작 가는 대목이다.

감비아 남서해안에는 군주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볼롱페뇨'라 불리는 석호가 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보호구역이다. 2017년 5월 볼롱페뇨 석호의 물이 붉게 변하고 수천 마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석호 주변에 둥지를 틀었던 새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석호 물을 분석한 결과 허용치를 몇 배나 초과하는 비소, 인산염, 질산염 등으로 오염돼 있었다.

오염의 원인은 석호 가장자리에 들어선 중국 생선 가공공장에서 흘러나온 폐기물이었다. 연안에서 물고기 씨를 마르게 하는 걸로 부족해서 가공공장에서 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산물을 파는 가게 앞에서 저 물고기가 어디서 건져 올린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내 식탁과 서아프리카 가난한 어부의 삶은 이토록 가깝게 연결돼있다.

社 說

## 선명상 대중화 운동, 전국민에 확산을

조계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2월 17일 서울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선명상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5년 선명상 대중화 사업 계획 발표와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제언들이 이어졌다.

올해 선명상 대중화 사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25국제선명상대회'다. 국제선명상대회는 4월 1~6일 서울 봉은사 일대에서 열리며,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명상지도자 초청 특강 및 대담, 토크쇼 등이 진행되며 서울불교박람회(4월 3~6일)와 연계될 예정이다.

특히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로 이어지는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마음평화의 달'로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두 행사간 시너지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연말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사회는 혼란의 한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명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선명상 대중화' 운동은 대승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과 맞닿는다.

워크숍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이 포교·전법의 마지막 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포교·전법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선명상은 현대사회에서 포교·전법을 이끌 중요한 방편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종단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 중앙신도회 70주년 사업에 거는 기대

올해 창립 70돌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국민 행복을 기원하고 한국불교 대중화를 견인할 '불자대회'를 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8대 1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7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기념사업의 백미는 오는 9, 10월 중에 열릴 예정인 '창립 70주년 불자대회(이하 불자대회)'다. 사회공헌사업인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과 연계한 불자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을 결집해 한국불교 전법 역량을 끌어 올리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에서는 선명상 수행 실천, 108배 정진, 금강경 독송 정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창립 70주년 기념식'은 오는 5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중앙신도회 비전선포식과 국민통합 실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1955년 전국신도회로 출발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70년 동안 불교를 외호·홍법하며 교육화된 신도들의 조직체로 성장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등 한국불교가 넘어야 할 파고는 많다.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승가와 재가가 튼튼한 연대를 이뤄야 한다. 특히 재가불자는 한국불교의 큰 버팀목이기도 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재가불자의 전법역량을 집중시키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2월 2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2월 2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2월 2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